

광주·전남 중기청·디자인센터·신세계 손잡고

中企 판로 확대 나섰다

상품발굴→디자인 지원→코너 제공 업무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과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 전우만),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 등 3개 기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전국적인 판로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장은 오는 25일 광주신세계 대회의실에서 '지역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향후 세부 사업내용, 기관별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내의 우수상품을 발굴·추천하고, 백화점 입점제품에 대한 기술지도 등 정책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상제품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기업), 성능인증기업, 경영혁신기업 등이 생산한 2차 가공농·특산품과 최종 소비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는 지역상품 기획판매 코너를 마련하고 판로확대를 위한 상담 등 우수 중기제품의 백화점 입점 판매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신세계는 오는 11월 제품생산현장에 바이어를 파견, 가공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상품 생산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순께 백화점 지하 1층 식품이벤트 매장에서 '지역 우수상품전'을 일주일 동안 개최할 방침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우수상품전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고객들의 반응을 최종 파악한 뒤 생산업체와 입점계약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지역상품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에게는 판로를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5년 개점당시

전통 한식 침구업체인 '운현궁'을 발굴, 신세계백화점 전국 6개 점포에 입점시켜 전국 브랜드로 육성시킨 바 있다. 운현궁은 현재 매달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입점상품의 패키지와 디자인 개발지원에 나선다.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도 판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이번 협약은 지역내 우수상품의 발굴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백화점 판매를 통해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중소기업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시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확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제선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20% 할인된 마일리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3만마일이 필요하던 일본 노선의 경우 2만4천 마일만 공제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월21일까지 만 20세 이상 아시아나 회원 중 잔여 마일리

지가 4만 마일 이상인 회원 본인에 한해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8곳의 호텔 숙박시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1588-8180.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투어상품을 오는 12월15일까지 선보인다. 제주 일주여행은 3만5천 마일, 일본의 아키타 여행 상품은 6만5천 마일이 공제된다. 문의(02)726-5500. /이종태기자 jilee@

삼성전자 냉장고 등 가전

美 로우즈사 '올해의 업체'

삼성전자가 16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가전유용 로우즈(Lowe's)사로 부터 '올해의 공급업체(Vendo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로우즈는 지난해 총 매출액이 470억불에 이르는 미국 4대 가전유통업체 중 하나로 미국내 1천4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올해의 공급업체'상은 로우즈가 제품 공급업체의 기술과 제품,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1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분야별로 각각 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수상한 분야는 바닥재와 부엌가구, 생활가전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라인(Hardline) 부문이며, 한국업체로는 처음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로우즈와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파레인지를 로우즈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현지에 판매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휴대전화 요금경쟁 막을랐다

이통3사 인하폭 7~10% 엇비슷

통화 패턴 잘만 활용하면 더 아껴

이동통신 갈아타기 본격화될 듯

KTF가 16일 통화료를 30~50% 내리기로 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요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작됐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의 실제 요금 인하폭은 7~10% 정도로 엇비슷하지만 할인 조건이 조금씩 달라 통화 패턴에 따라 잘만 활용하면 인하율보다 요금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요금 할인률

	SK Telecom	KTF	LG Telecom
영내 통화	월 2,500원 추가 50% 할인	월 2,500원 추가 30~50% 할인	월 2,500원 추가 한달 20시간 무료
타사 통화	-	30~50% 할인	300분 무료 (기본료 4만 1천원)

SK텔레콤은 망내 할인 비율이 50%로 낮지만 2천1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채감 할인폭은 적지 않다.

자신이 주로 통화하는 상대방이 SK텔레콤 가입자라면 굳이 이동통신 업체를 바꿀 이유는 없을 셈이다.

반면 KTF는 자사 가입자간 통화는 물론 타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도 일률적으로 30%를 할인해주는 상품과 유선 전화로 걸 때도 50%를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맞불 작전에 나섰다.

30% 할인폭이면 SK텔레콤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업무용 등으로 주로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거는 가입자라면 50%를 할인해주는 'KT 패밀리 50% 할인' 요금제도 썬볼 만하다.

LG텔레콤 가입자라면 LG텔레콤 가입자와 통화할 때 20시간 100% 할인해주는 상품을 컵요금제처럼 활용할 수 있다.

다량 사용자는 월 4만1천 원을 내면 LG텔레콤 가입자끼리는 20시간 무료 통화, 타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는 300분 무료 통화 혜택을 주는 상품을 이용하면 월 5천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 지식동에 '한일베라체' 448세대 분양

한일건설은 광주시 남구 지식동에 '한일베라체'아파트 448세대 분양한다.

지식동은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197만㎡ 규모의 첨단 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유통단지 가 5분 거리에 있고, 월드컵경기장과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유이 편리하다.

인근 대촌동에는 영어마을이 들어선다. 뉴욕·캘리포니아마을 등 4개 마을을 비롯, 기숙사, 다목적 운동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대촌초·중학교와 대촌고, 문성고, 과학고, 살레시오고, 동아여고 등의 학군도 인접해 있다. 문의 062-681-1771. /최경호기자 choice@

한-EU FTA 체결때 수출물 수입 15.3% ↑

수출도 13.7% 늘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약 15.3%의 수출물 수입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한·EU FTA 체결시 피해예상 추정내역'에 따르면 EU와 FTA 체결후

수출이 100% 절멸됐을 때 수출물 수입증대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수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규모보다 15.3%, 1천131만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해양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강릉대에 의뢰해 한·EU FTA의 수산업 부문 영향분석을 한 결과다.

반면 EU와 FTA 체결후 수출물 수

출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평균 수출규모보다 약 13.7%, 954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강릉대 측의 추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 관세철폐를 가정할 경우이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 수출·수입 증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입주 중소기업, 대출 이자 감면

기업은행은 17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이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고 1% 포인트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 11월초에는 자유구역 입주기업 전용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까지 업무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光銀 폰뱅킹 등 이용 전기요금 납부서비스

광주은행은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의 고객별 전용 수납계좌를 제공하는 '전기요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요금 가상계좌와 납부서비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별 전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중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도시가스 요금이나 각종 보험료, 대학 등록금 납부 등도 가상계좌 서비스로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株)행복출판

최우수 1위 한국대표 재능강화회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00% 유기자생농산물

100% 유기자생농산물

장수/은/삼/밥

100% 유기자생농산물

장수출삼밥

자연 그대로... 우리농에 좋은 유기자생농산물입니다

100% 유기자생농산물

100% 유기자생농산물

100% 유기자생농산물

장수/은/삼/밥